

## 故國의 따스함에 感銘

大統領賞 受賞

서울대학교 教授 李 光 秀

고국의 여러 선배님들 . 친지 그리고 과학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호의와 저에 대한 아낌으로, 크 나큰 상을 주시어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 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에 앞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국의 따스함에 감명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 정부의 깊은 인식과 정책, 그리고이에 호응하여 여러 과학인의 열면 노력과 자세에 본인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처해있는 역경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다짐하는 과학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이에 발맞추는 국민의 성원은 본인으로 하여금 과학 한국의 장래가 촉망될 수 있으리라는 고무적인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의 연구 생활에서 얻은 경험으로 보건데 우리 한국인은 세계 어느 국민에게도 뒤지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국제대열에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의 선천적

인 능력이 충분치 못한 우리 현실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이들 학도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이며, 선결 문제가 허다히 산적하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과학 연구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연구시설, 풍부한 연구비등 요구되는 사항이 많지만, 연구자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안정에서 오는 정신 안정, 이로 말미암아 과학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과학 인구의 증가는 지 금과 같이 현실적으로 흐르기 쉬운 젊은 학도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물이레가 불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한국의 여러 부면의 과학 현실을 상세히 낱알이 알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다행히도 의학 부분은 여러 선진국 특히 미국과 학자 전문서적 그리고 잡지등의 교류가 활발하여 최근의 의학 동향에 발맞추고 있음은 물론, 최근 지식 지식과, 그에

따르는 기술 훈련을 갖추고 있으며 여건만 어느 정도 갖추어 진다면 속히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 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과학 진흥을 위해서 여러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에서 훌륭한 기술을 얻마한 과학인을 적재 적소에 이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 실험과 여건에 맞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은 의학 부분 이외에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발돋움이라고 생각합

니다.  
몇군데 연구 기관, 그리고 대학의 실험실등을 돌아본 결과, 점차 그 시설이 증가하고 확충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도로 발전하면 머지않아 선진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으로 단정합니다. 국내의 우수한 대학인 서울대와 연세대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종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과 그 의욕은 현재 우리 한국의 과학 발전에 근본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우리 기성 과학인은 마음속에 가진 의욕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고 구현시킬 수 있는 leader ship을 발휘하여 새로 자라는 젊은 학도들에 실망을 주지 않는, 의욕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의 저에 대한 이상은 저로 하여금 보다 노력하고 보다 과학에 헌신 하라는 체적으로 알고 젊은 학도들의 양성과 과학교육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